

귀농 7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다 해오름농장



김 동 호 기자
농수축산신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타향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육계산업이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는 점과 계절화로 인해 가격의 등락에 구애를 덜받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농 7년만에 연평균 1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해오름농장을 찾아 서점주 대표의 귀농 성공스토리를 들어봤다.

회사원에서 귀농인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던 서 대표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는게 전혀 없자 갑자기 귀농을 결심했다고 한다.

서 대표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귀농을 했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 대표의 아버지의 땅을 빌려 보온덮개 계사에서 양계업을 하던 사람이 양계업을 그만두며 서 대표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관련 조례 등으로 축사의 입지를 찾기 힘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한 셈이었다.

이와 더불어 인근에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아 사육노하우를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짧은 시간내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일조했다고 한다.

서 대표는 “나처럼 짧은 시간 준비로 귀농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고 양계업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육계업 덕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나와 내 처가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정적 수익과 정기적 휴식에 '만족'

서 대표는 육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사육기간이 매우 짧고 일정기간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는데 만족감을 표했다.

타 축종의 경우 연속성이 있어 축사를 비우기가 힘든데 육계의 경우 31일령 정도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나면 농장 청소와 소독을 마친 후 1~2주 가량은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마을 주민들과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같이 여행도 떠나거나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하다”며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만 부지런히 일한다면 그만한 소득도 이어지는게 가장 좋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시설투자 덕분에 계사의 관리도 크게 편해져 최근에는 육계사육



서점주 대표

이 ‘신선놀음’이라고 느껴진다는 게 서 대표의 전언이다.

이웃배려, 축산업의 기본

최근 축산업에 규제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은 점차 위생·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악취 등 환경과 관련된 민원보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축산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축산업의 현실에 대해 서 대표는 이

웃을 먼저 배려해야만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서 대표는 “축산업의 여건과 추세를 역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먼저 동네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생산해야만 양계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플러스특 서점주 대표

“우리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노후대책을 염려하는 세대입니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땅 1,000평 정도에 살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합니다.”

서점주 대표는 귀농을 위해 최소한 수억원의 기본 자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 거 없으면 시골가서 농사나 짓겠다’ 라는 말처럼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 게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다.

더불어 시골에 내려가면 도시의 아파트 이웃집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서 대표는 “시골은 도시와 달리 유교적인 마인드가 많이 남아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아주 예민하다”며 “시골 어른들의 일을 내일처럼 봐주고 한 가족처럼 마음을 연다면 성공적인 귀농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장의 한가디 김효빈 지역소장

“육계로 귀농을 희망한다면 7~8만수가 가장 적당한 사육수수일 것 같습니다. 10만수를 넘어가게 되면 농장 관리시 일의 강도가 너무 세지고 5만수나 그 이하일 때는 노후생활을 즐기기 다소 아쉬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7~8만수 수준이면 안정된 소득으로 충분한 여가를 즐기는 적정 수준의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